

광주, 겨울 실내 스포츠 활성화·배구 저변 확대



페퍼저축은행 여자 프로배구단 연고지 광주 최종 확정

페퍼저축은행 여자 프로배구단이 10일 연고지를 광주로 최종 확정했다.

동계 실내 스포츠 붐모지 광주는 프로배구단을 유치함으로써 실내 스포츠 활성화와 배구 저변 확대라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누릴 전망이다.

우선 광주는 프로 배구단을 바탕으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게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실제 김천시와 대전은 각각 한국도로공사 하이패스 배구단과 KGC인삼공사 프로배구단을 지역으

프로배구단 바탕 지역경제에도 활력 불어넣을 듯 광주시·광주시배구협회 끈질긴 유치 노력 '결실'

로 유치해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중소 도시에서는 최초로 2개의 프로구단을 연고지로 둔 김천도 스포츠 도시로 자리매김했다.

광주 역시 프로야구, 프로축구에 이어 프로 배구단을 보유하는 등 명실상부 사계절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도시가 됐다. 페퍼저축은행은 배구 전용구장으로 리모델링을 마친 영주종합체육관과 보조구장 활용이 가능한 빛고을체육관 등을 홈 구장으로 활용할 전망이다.

광주시와 광주시 배구협회 등은 '광주연고'의 강점을 집중 부각해왔다. 페퍼저축은행도 광주시의 이런 매력에 공감, 광주를 택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

다. '팬층과 확장 가능성'은 광주가 첫 손 꼽는 강점이다. 광주와 전남·북을 통틀어 510만명에 달하는 인구는 수도권을 웃도는 팬덤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것이다. 광주·전남 배구동호인이 4500명에 달하며 210 여개 팀이 있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다.

페퍼저축은행 여자 프로배구단은 연고지에서 우수 선수를 뽑는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프로배구에서 선수육성 시스템은 장기적인 성장동력이다.

광주시에는 치평초, 광주체육중, 광주체고 등이 있고 목포에는 목포여상 등 여자 배구 연계 육성 시스템 갖추고 있다. 페퍼저축은행이 광주에 연고

를 둘 경우 지역 우수선수를 스카웃할 수 있다.

페퍼저축은행 광주연고 확정에는 지역 염원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이용섭 광주시장이 배구단 유치를 위해 전면에 나섰고 조인철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 김준영 문화관광체육실장, 전갑수 광주시배구협회장, 김민철 조선대 스포츠산업학과 교수 등으로 구성된 유치추진단을 꾸려 총력을 쏟았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병훈(광주 동구남구) 의원, 정무위원회 소속 민형배(광주 광산구) 의원도 매튜 장 페퍼저축은행 대표를 만나 광주를 연고지로 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전갑수 광주시 배구협회장은 페퍼저축은행 광주 유치를 산파역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는 2014년부터 광주시 배구협회를 맡아 프로배구단 광주유치에 공을 쏟은 끝에 7년 여만에 결실을 이 끌어냈다. 2015년 한전 프로배구단 광주유치를 위

해 서명운동에 돌입하는 등 지역민의 여망을 결집했으며, 2019년 상반기에 한전 프로배구단 유치가 좌절되자 같은해 9월 국내 여자프로배구단 4개팀을 광주에 초청해 경기를 치르는 등 공을 들였다. 이 경기를 지켜본 한국배구연맹(KOVO) 관계자들이 광주배구의 저력을 확인, 이번 페퍼저축은행 광주연고지 확정을 위해 음모로 도왔다는 후문도 있었다. 이번 페퍼저축은행 배구단 유치를 위해 그는 KOVO, 페퍼저축은행 관계자 등을 설득하는 등 막후에서 총력을 쏟은 것으로 전해진다.

광주시가 배구단 연고 유치에 성공했지만 넘어야 할 산은 있다. 선수단 숙소, 지원방안 등 구체적 현안에 대한 협상이 진행중이기 때문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페퍼저축은행측과 다양한 세부사항을 논의하고 결정해야 하는 과정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김선빈·터커, 베테랑의 힘 보여다오



김선빈

위기의 '윌리엄스호'를 구할 베테랑의 실력과 품격이 필요하다.

KIA 타이거즈가 악몽의 5월을 보내고 있다. 부상 악재가 겹치면서 5월을 연패로 시작한 KIA는 선발 전원안타가 터진 5일 사직경기에서만 유일하게 승리의 세리머니를 했다.

미세먼지의 영향으로 더블헤더를 치렀던 9일에는 2패가 한 번에 쌓이는 등 5월 성적은 1승 6패에 그치고 있다.

당연히 '두산', '주말' 징크스 탈출에도 실패했다. 2년 연속 3승 13패의 치욕스러운 상대전적을 기록한 두산에 올 시즌 4전 전패 중이고, 토·일요일에 진행된 12경기의 승률은 '0'이다.

선발진이 안정을 찾았지만, 뒷문은 여전히 불안하고, 공격의 위압감도 떨어진다.

비록 팀 승리를 이끌지는 못했지만 9일 더블헤더 1차전에 출격해 임기영이 1회 3점을 내주고도 5.2이닝 3실점으로 선발 역할을 해줬고, 김우신도 프로에서 처음 5이닝 이상을 소화하면서 선발 이닝 고민을 줄여줬다.

하지만 올 시즌 13경기에서 8.10의 평균자책점을 기록하는 등 부진을 이어온 박준표가 결국 10일 엔트리에서 제외됐고, 정해영도 아슬아슬한 시즌을 보내고 있다.

무엇보다 '물방망이', '돌글러브'의 야수진이 고민이다.

T 타이거즈 전망대

■ KBO 중간순위 (10일 현재)

순위	팀명	경기	승	무	패	게임차
1	삼성	31	19	0	12	0
2	LG	30	17	0	13	1.5
3	두산	30	16	0	14	2.5
3	KT	30	16	0	14	2.5
3	SSG	30	16	0	14	2.5
6	NC	30	15	0	15	3.5
7	키움	31	14	0	17	5.0
8	KIA	30	13	0	17	5.5
8	한화	30	13	0	17	5.5
10	롯데	30	12	0	18	6.5

KIA 윌리엄스호 '악몽의 5월' '두산'·'주말' 징크스 탈출 실패 올 시즌 두산전 4전 전패 토·일요일 12경기 승률 '0' 이번 주 홈 LG - 원정 NC 상대 베테랑 선수들 역할에 기대



터커

팀워크와 집중력으로 부족한 실력을 채워야 한다. 김선빈이 턱아웃 리더로 선수단을 하나로 묶으면서 그라운드 안팎에서 구심점 역할을 해야 한다.

상승세를 타고 있는 터커는 공격의 전면에 서야 한다. 공교롭게도 팀의 줄부상 속 익숙한 외야로 이동한 뒤 터커의 방망이도 살아나는 모습이다. 지난 8일 두산을 상대로 기다렸던 시즌 첫 홈런을 터트린 터커는 연타석 홈런까지 장식하면서 방망이 예열을 끝냈다.

최근 10경기 타율도 0.395에 이르고, 8타점도 기록했다.

지난 시즌 시너지 효과를 발휘했던 나지완과 최형우가 빠져지만 터커가 결정적인 한 방으로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

이번 주 KIA는 안방에서 LG 트윈스와 주중 3연전을 벌인 뒤 주말에는 NC 다이노스의 안방으로 가서 경기를 치른다. 앞선 만남에서는 LG에 워닝 시리즈를 쟁겼지만, NC에는 스윙패를 기록했다.

맹덴이 한 주의 시작과 끝을 장식한다. 스피드를 찾은 맹덴은 최근 4경기 연속 퀄리티 스타트를 기록하며 초반 우위를 탈어냈다. 그는 5월 유일한 승리투수이기도 하다.

KIA가 터커의 창, 맹덴의 방패, 그리고 김선빈의 경험을 앞세워 위기 탈출에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광주FC, 수원에서 최하위 탈출 벼랑 끝 승부

헤이스 앞세워 승리 사냥

최하위로 내려간 광주FC가 수원에서 벼랑 끝 승부를 벌인다.

광주는 11일 오후 7시 30분 수원종합운동장에서 수원FC를 상대로 하나원큐 K리그1 2021 15라운드 원정 경기를 치른다.

말 그대로 광주는 벼랑 끝에 서 있다.

강원FC, 울산현대와 경기에서 연달아 패배를 기록했고,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FC서울과의 경기를 쉬는 동안 순위가 바뀌었다.

12위에 있던 수원FC가 제주 원정에서 3-1승리를 거두면서 11위에 있던 광주와 자리를 바꾸었다. 승점(13)은 동률이지만 득점에서 수원FC(14점)가 광주(11점)에 앞서면서 두 팀의 차이가 달라졌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번 경기는 사실상 승점 6점을 놓고 벌이는 '운명의 경기'가 됐다. 주말에는 10위 인천유나이티드의 안방으로 가야 하는 만큼 광주에 수원FC전 승리가 절실하다.

최하위로 내려왔지만 반전의 기회는 있다. 지난 주말 경기가 취소되면서 아직 한 경기를 덜 치렀고, 역시 한 경기 선 7위 성남까지 승점 3점 차 안에 있다. 8위 서울, 9위 강원, 10위 인천과도 승

점 2점 차다.

주말 휴식으로 체력 증진도 끝났다. 광주는 한 주 쉬어가면서 체력이 채우고 앞서 연패의 충격도 덜었다. 또 이번엔 만나는 수원FC에 강한 면모를 보여줬다. 역대 전적에서 광주가 13승 4무 5패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고, 지난 4월 7일 안방에서 벌인 맞대결에서도 펠리페의 멀티골에 힘입어 2-0 승리를 기록했다.

광주는 신형 엔진 헤이스를 앞세워 승리 사냥에 나선다.

헤이스는 4월 6경기에서 키캡스(15호), 크로스 및 성공률 1위(52회 중 18회 성공)를 기록하며 K리그1 4월 다이내믹 포인트 3위에 이름을 올렸다.

광주 공격의 핵으로 자리 잡은 헤이스와 함께 탄탄한 대인방어 능력은 물론, 세트피스 상황에서 시즌 2골을 기록 중인 '골 넣는 수비수' 이한도, 정확한 퓌파스로 공수를 조율하고 있는 알렉스 '센터백 듀오'의 활약도 든든하다.

수원FC는 라스를 중심으로 박지수, 윤영선, 박주호, 정동호 등 수비라인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앞선 제주 원정에서 조우민의 멀티골과 라스의 골로 4경기 만에 승리를 거두면서 분위기도 좋다. 휴식으로 체력을 채운 광주가 수원FC의 상승세를 잠재우고 순위를 끌어올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